

케이스탯 2022년 6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 58%로 긍·부정 역전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52%, 최근 2년 내 최저치
- _ 정부 신뢰도 : ‘신뢰’ 46%, 작년 4월 이후 최고치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41%, 작년 1월 이후 최고치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7%, 6%p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73%, 상승 전망 뚜렷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7%로 하락세 보여
- _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38%, 상승세 지속

■ 6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 의식

- _ 개인 행복도 : 어제, ‘행복했다’ 50%, ‘걱정 많았다’ 50%
- _ 상대적 행복도 : ‘주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66%
- _ 5년 후 개인 삶 전망 : 비슷 48% > 긍정 38% > 부정 14%
- _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긍정’(30%) 하락, ‘부정’(25%) 상승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6월 10일(금) ~ 6월 12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0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9\%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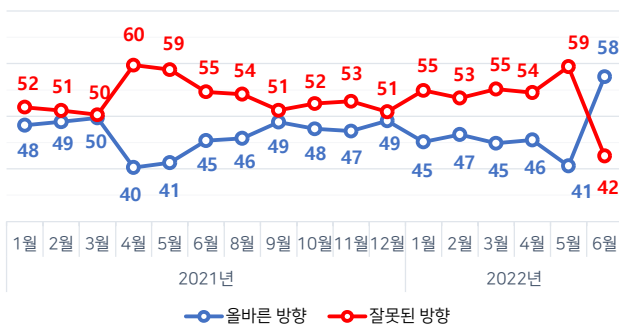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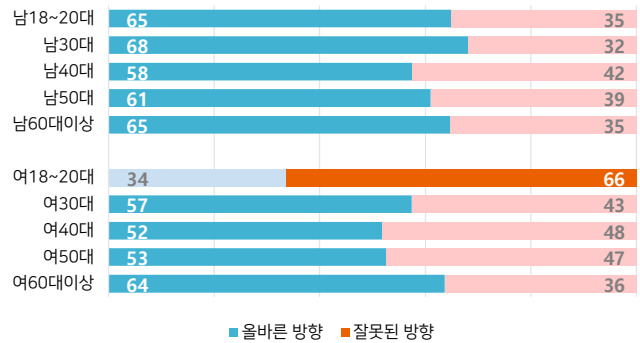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 58% > '부정' 42%, 긍·부정 역전

-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42%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섬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보수층 등임
- 한편, 부정평가가 더 우세한 계층은 △여자 18~20대 △호남 △진보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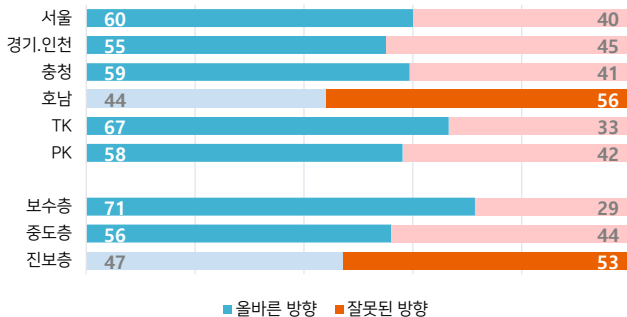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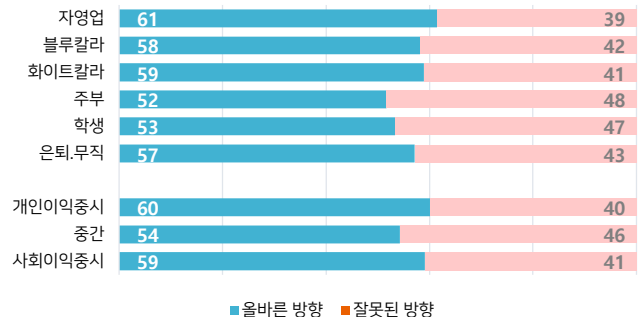
2022년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2022년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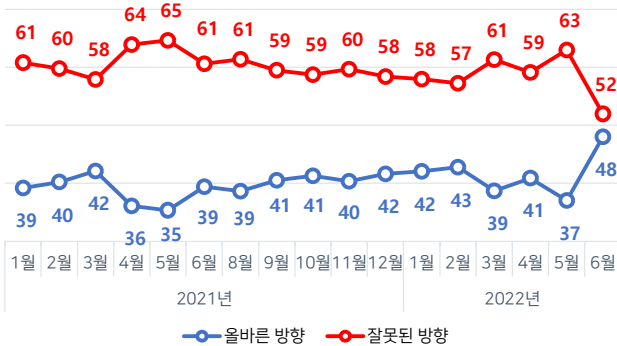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금번 6월 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번째 수치로, 긍정평가 우위로의 역전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여론지형 변화 때문으로 분석됨
 - : 계층별 긍정/부정평가 우위층을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긍정평가 우위층과 부정평가 우위층이 바뀌었음
 - : 이전까지 긍정평가 우위층이던 호남, 진보층 등이 부정평가 우위층으로 태도를 바꿈
 - : 또한 부정평가 우위층이던 남자 20대, 남녀 60대 이상, TK, 보수층 등이 긍정평가 우위층으로 달라짐
- ☑ 더불어 새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긍정평가 우위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부정평가 우위층인 호남, 진보층 등에서도 긍정평가 여론이 다소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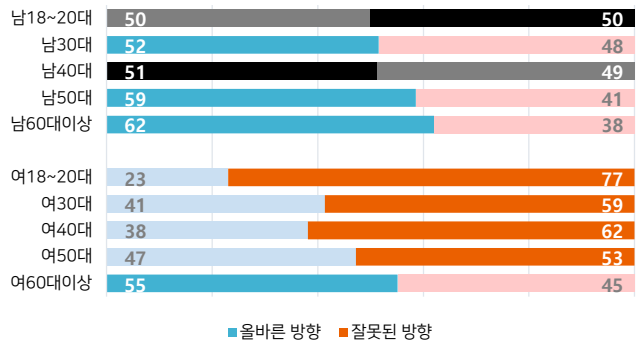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52%, 최근 2년 내 최저치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 48%, '잘못된 방향' 52%를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가장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됨
- 계층별 긍·부정 평가는 엇갈렸으며, 긍정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충청, TK △보수층 △자영업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이었음
- 부정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40세대 △호남 △주부, 학생 △중간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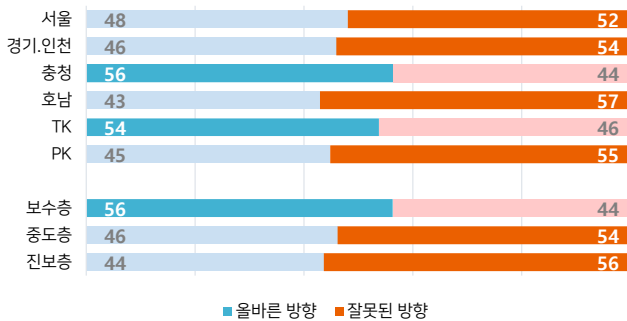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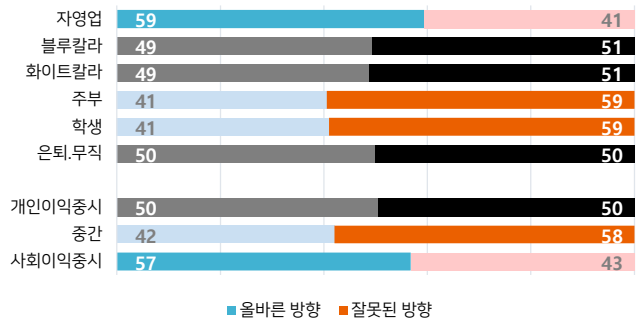
2022년 6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6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2022년 6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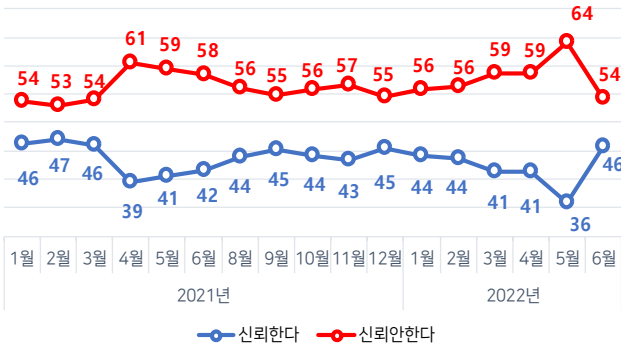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한 여론이 크게 개선됨
- ☑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대감이 투영된 결과로 분석됨
 - 6월 2주(22.6.8.~6.9.) 넥스트리서치가 수행한 지방선거 결과 관련 질문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바람직한 결과'라는 응답이 60.5%를 기록함
 - 또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정책'이 1위를 기록했는데 (41.7%), 이는 두달 전보다 9.9%p 상승한 수치임
- ☑ 향후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기대감대로 지금의 물가상승·경제 침체 흐름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국민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지금의 경제 위협요인들이 대부분 대외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경제안정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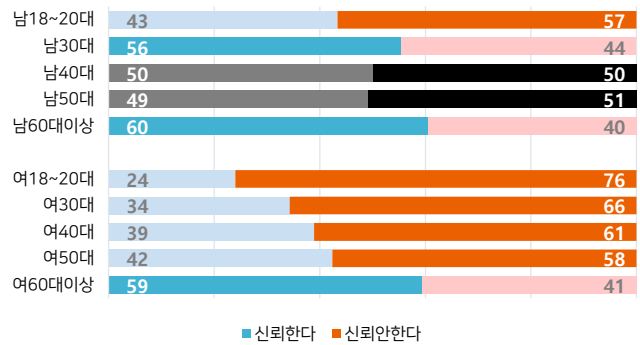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46%, 작년 4월 이후 최고치

- 정부를 '신뢰한다' 46%, '신뢰 안 한다' 54%로, 정부 신뢰도가 여전히 낮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점진적으로 악화하던 흐름이 반등세를 나타냄
-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신뢰 안 한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40세대 △호남 △진보층 △학생 등이었음
- '신뢰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서울 △보수층 등으로 나타남
- 한편, △남자 4050세대 △PK △사회이의 중시층 등은 두 의견이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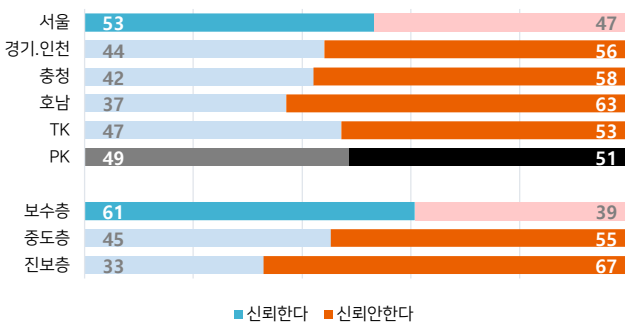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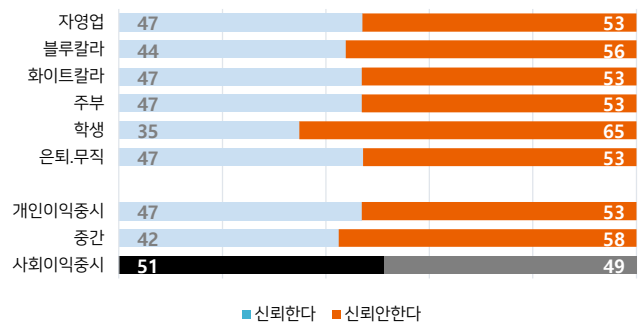
2022년 6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6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2022년 6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층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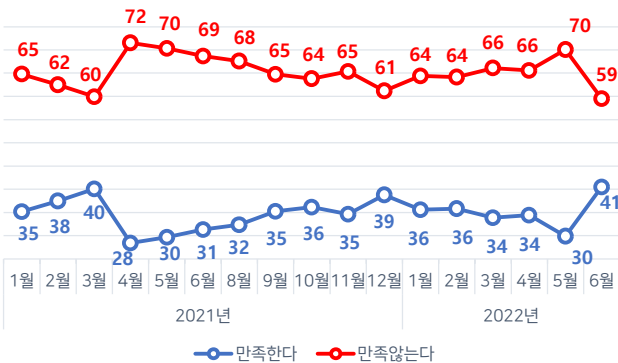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월 이후(재·보궐선거 직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여론지형 변화 때문으로 분석됨
- ☑ 그러나 앞서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58%)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양상임
: 이는 정부 출범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과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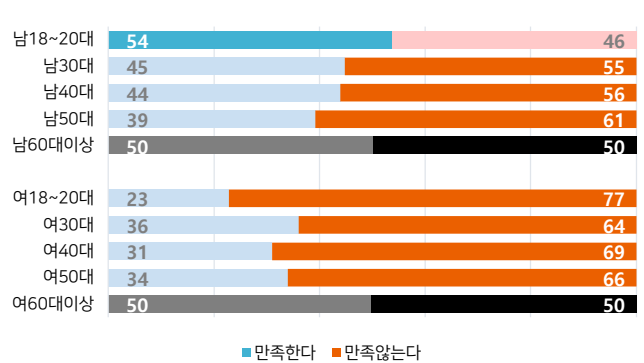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41%, 작년 1월 이후 최고치

- 정부 정책 관련, '만족한다' 41%, '만족하지 않는다' 59%로, 지난 1년 6개월간 60%선을 상회하던 부정응답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50세대 △호남 △진보층 △주부 등임
- '만족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보수층 등이었음
- 한편 △남녀 60대 이상 △은퇴·무직자 등은 두 의견이 50%로 팽팽했음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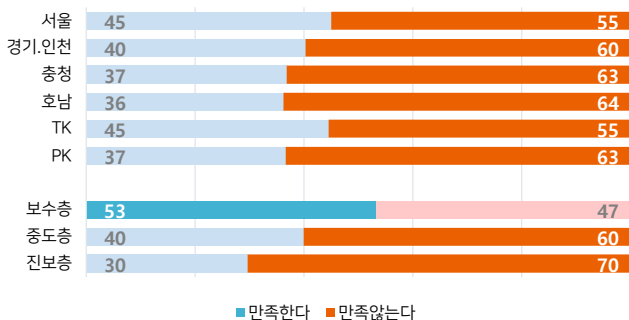


2022년 6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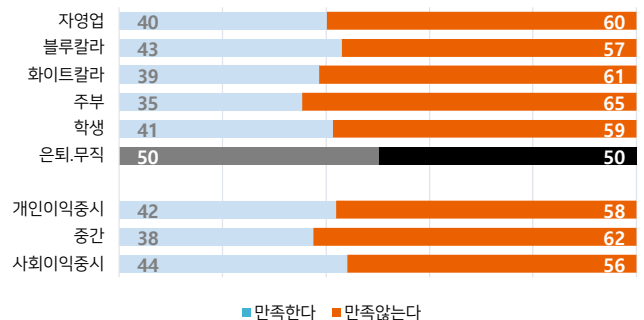
2022년 6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2022년 6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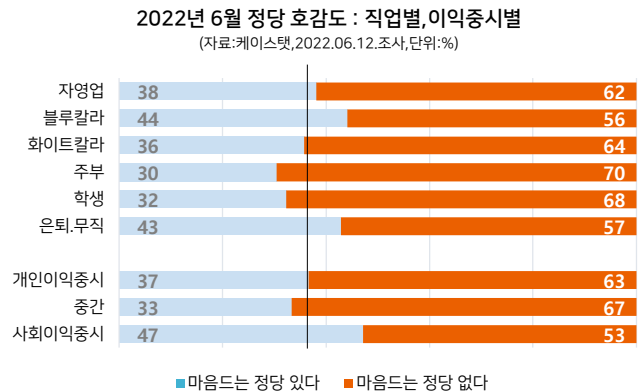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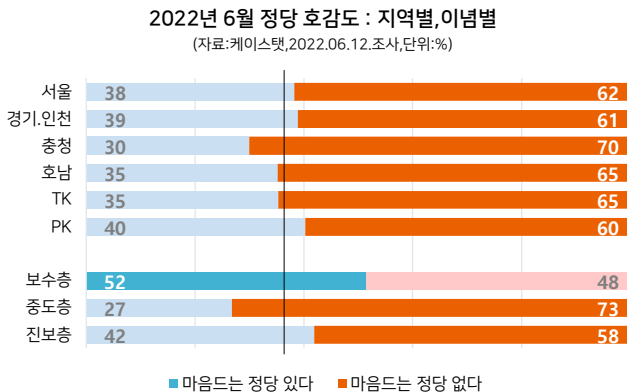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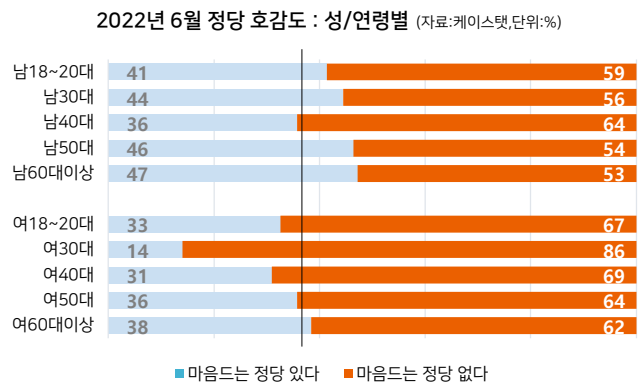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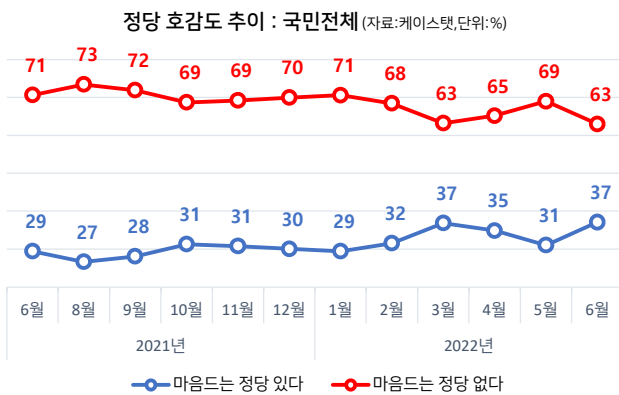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정책 만족도(41%) 역시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새정부 출범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대한민국 방향성 긍정평가 58% > 정부 신뢰도 46% > 정부정책 만족도 41% 등으로 하향화되어 있어 '새 정부 출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 통상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비전을 선명히 제시하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고조시키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임
 - ： 또한 정부 정책면에서도 일부 정책의 방향과 기조만 제시되었을 뿐(5월 한미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외교·안보 분야, 규제 완화 등 시장·민간·기업중심 경제 분야 등) 구체적인 정책이 속도감있게 발표되지 못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는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7%, 전월 대비 6%p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 37%, '없다' 63%로, 지난 3월과 동일한 결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하며, 특히 △여자 3040세대 △충청 △중도층 △주부, 학생 등에서 높았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50대, 60대 이상 △보수층, 진보층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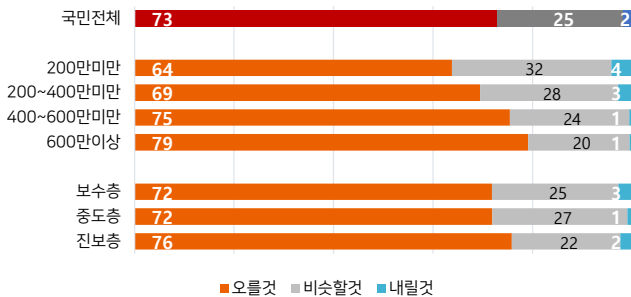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3월 대선 직후 정당호감도가 상승한 것과 동일하게, 6월 지방선거 직후인 이번 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상승함
 - : 정당호감도 상승을 주도한 계층은 보수층으로, 이들은 지난 3월에도 전월 대비 긍정 의견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상승함
 - : 이에 비해 진보층과 호남의 정당호감도는 하락함
- ☑ 이러한 흐름은 정당지지도에 뚜렷히 반영돼,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함
 - : 6월 3주 현재 국민의힘 지지도는 43%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9%를 기록 중임(자료, NBS 전국지표조사)
- ☑ 다음 달 정당호감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내 계파 갈등을 겪고 있고,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정당호감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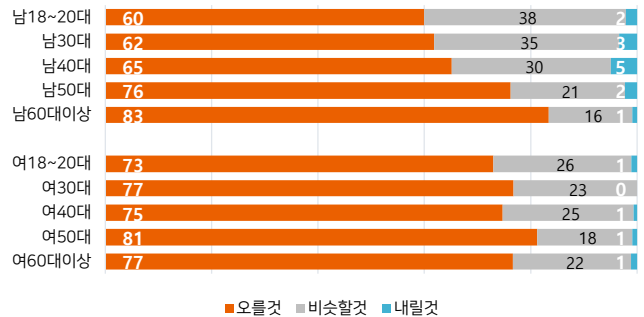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73%, 상승 전망 뚜렷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이 73%로, 물가 상승 전망세가 우세했음
 - '지금보다 오를 것' 73%, '지금과 비슷할 것' 25%, '지금보다 떨어질 것' 2%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남자 60대 이상 △여자 30대, 5060세대 △주부 등에서 상승 전망이 두드러짐
- 물가 상승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남자 2040세대 △충청, 호남, TK △자영업자, 블루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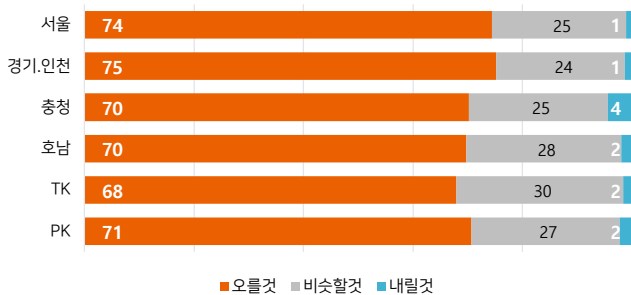
6월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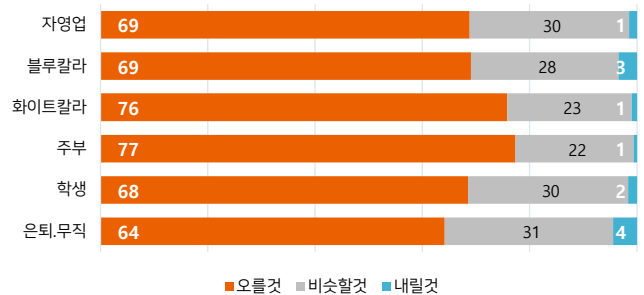
6월 '익월 물가 전망' : 성/연령별 (단위:%)



6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6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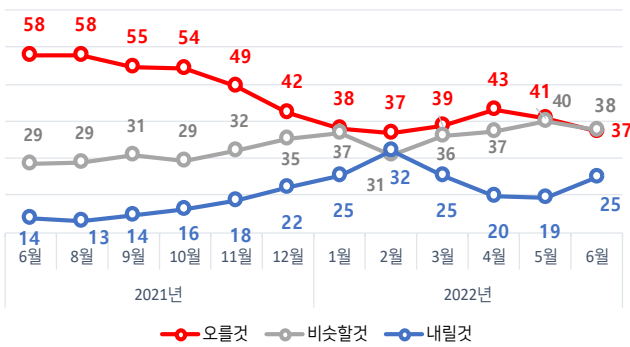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여론이 명확하게 드러남
- ☑ 실제로 5월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최대로 상승했고, 외식물가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7%) 이후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함
 - : 최근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대변하는 '런치플레이션(점심·Lunch+물가상승·Inflation)'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민의 물가상승 체감도가 상당한 상황임
- ☑ 앞으로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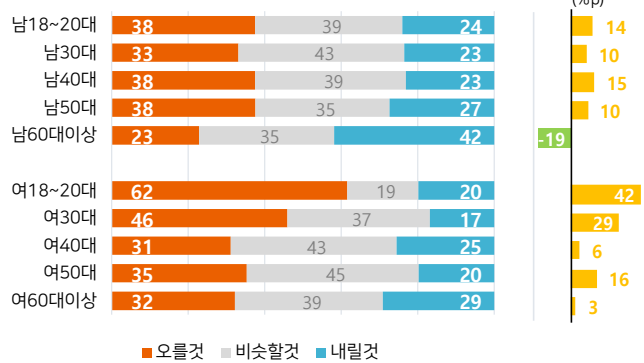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7%로 하락세 보여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 38%, '지금보다 오를 것' 37%, '지금보다 내릴 것' 25% 순으로, 지난해 2월 조사 이후 '비슷할 것' 응답이 '오를 것' 응답을 처음 앞지름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해 여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높음
- 부동산 가격 상승을 특히 높게 전망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충청 △국가 방향 부정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이었음
-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TK 등이었으며, △여자 60대 이상 △사회의익 중시층 △보수층 △정부 신뢰층 등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을 낮게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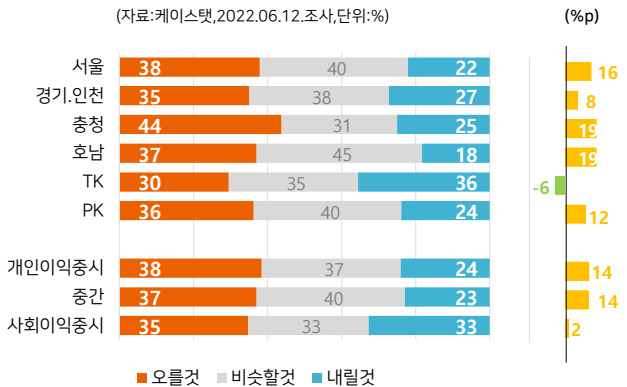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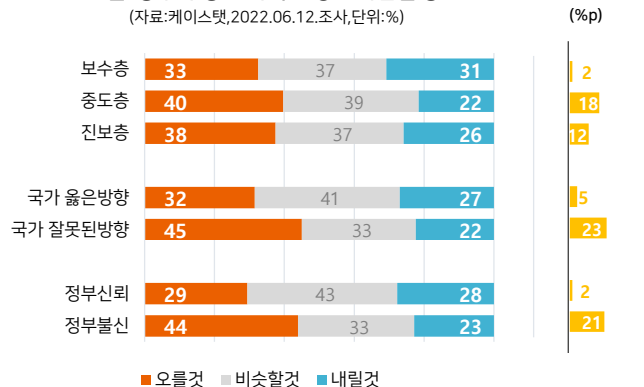
6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성/연령별 (단위:%)



6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 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6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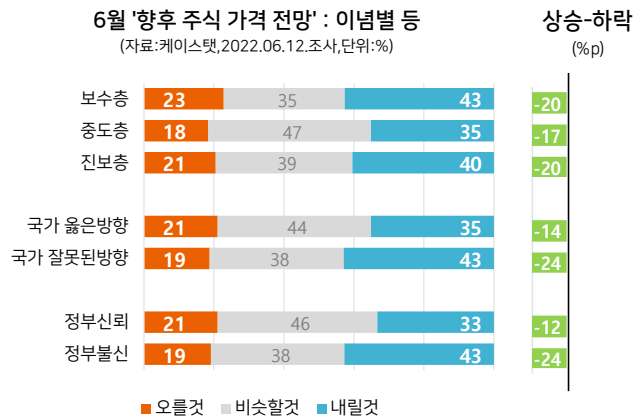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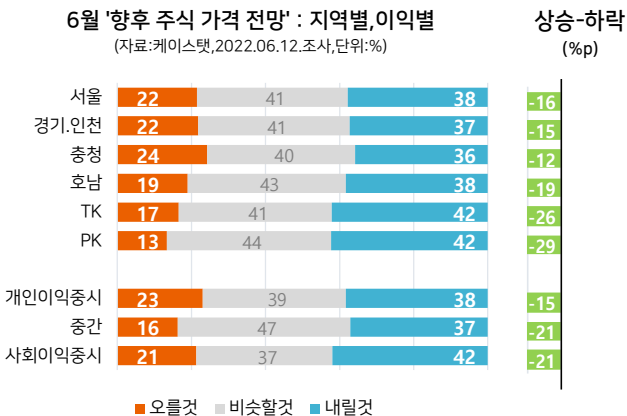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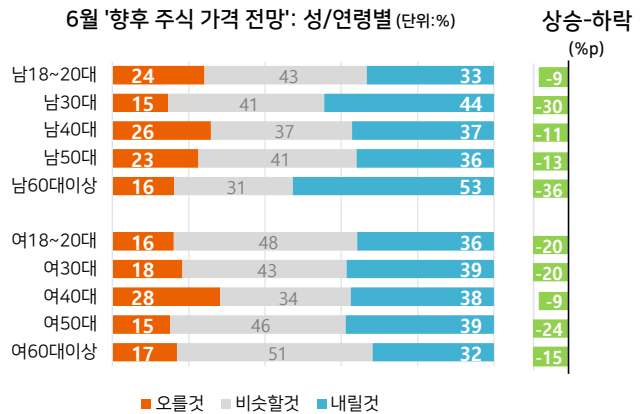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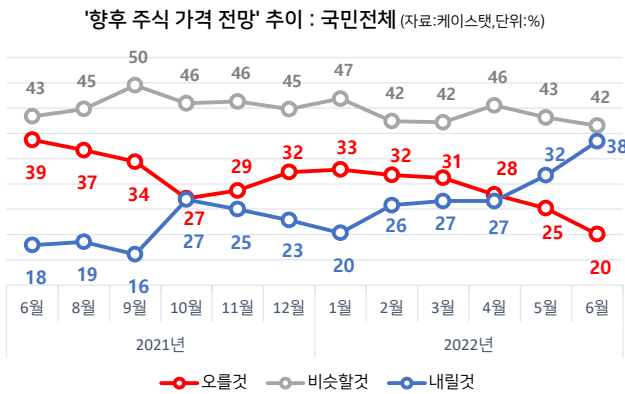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여론이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 이 같은 여론은 5월의 주택종합 매매가와 주택 매매 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됨
 - ： 5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1%로 4월(0.06%) 대비 상승 폭이 감소함
 - ： 주택매매심리도 집값과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109.4)는 전월(116.0)보다 6.6p 하락함
- ☑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13년 만에 연 7%로 오르고, 물가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주택 수요자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38%, 상승세 지속

- 주식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 42%, '지금보다 내릴 것' 38%, '지금보다 오를 것' 20% 순으로 조사됐으며, '내릴 것' 응답이 5개월 연속 상승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는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주가 하락 전망이 우세함
- 주가 하락('차이'가 마이너스)을 특히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30대, 60대 이상 △여자 50대 △TK, PK △국가 방향 부정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이며,
- 주가 하락을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40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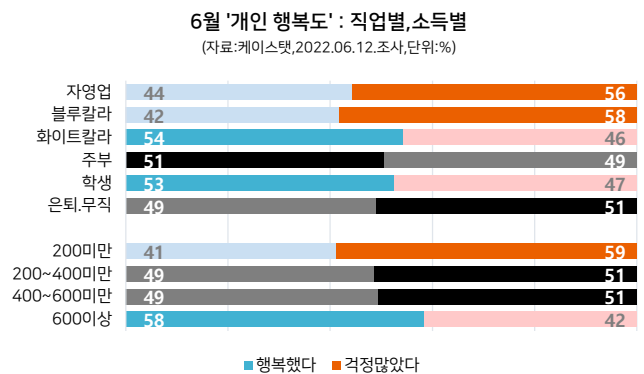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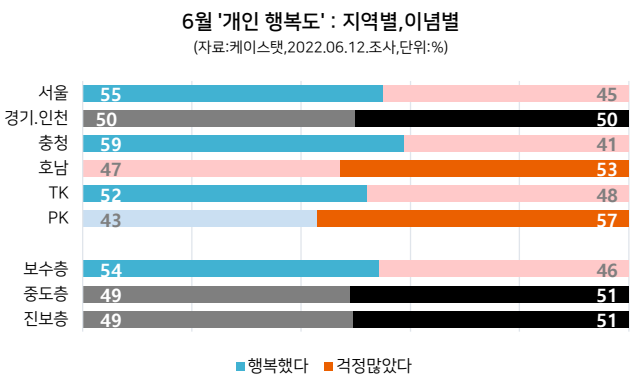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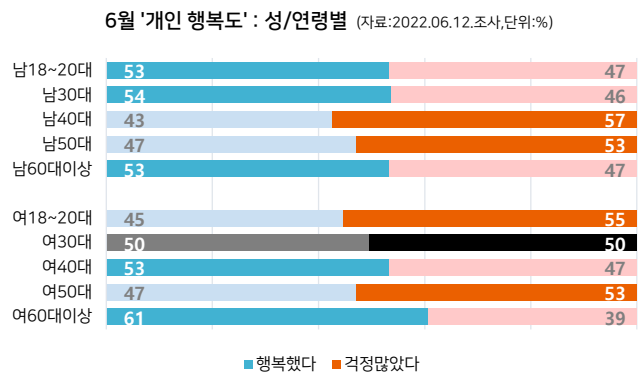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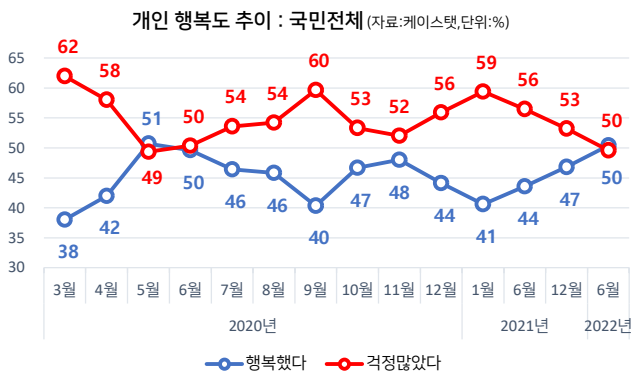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올해 들어 '주가 하락 전망' 여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
- ☑ 코스피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550선을 기록한 5월에 이어 6월에는 연저점인 2440선(6.15. 종가 기준 2447.38)을 기록함
 -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도 '20년 11월 이후 처음 5만 원대를 기록해 '5만전자'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어두운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음
- ☑ 전 세계가 '저금리-완화시대'에서 '고금리-긴축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이른바 '유동성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지적임
 - 경제전문가들은 먼저 주식과 가상화폐에서 거품이 걷히고, 이후 부동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6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 의식

□ 개인 행복도 : 어제, '행복했다' 50%, '걱정 많았다' 50%

- 국민 절반(50%)은 어제 하루 '행복했다'고 응답하고, 또 다른 절반(50%)은 '걱정했다'고 응답함
- '행복했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60대 이상 △서울, 충청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등이었음
- '걱정 많았다' 응답이 더 높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18~20대, 50대 △호남,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여자 30대 △경기.인천 △중도층, 진보층 △주부,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 소득 200~600만 원 미만은 두 응답이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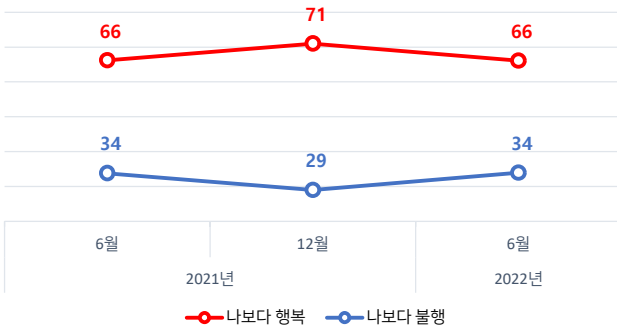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1월 이후 어제 하루 '행복했다'는 응답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국민 전반의 행복도가 이전보다 나아짐
 - ☑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계기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평범한 일상생활을 되찾고,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거리두기 해제 후 모바일 산업 변화를 분석한 아이지아이웍스(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는 2022년 3월 대비 5월의 '영화 카테고리 앱' 사용자 수는 86.2% 늘어났고, '외식·음식점'은 69.2%, '아웃도어·레저시설' 66.7%, '항공사·숙박권' 45.6%, '해외 숙박' 20.4%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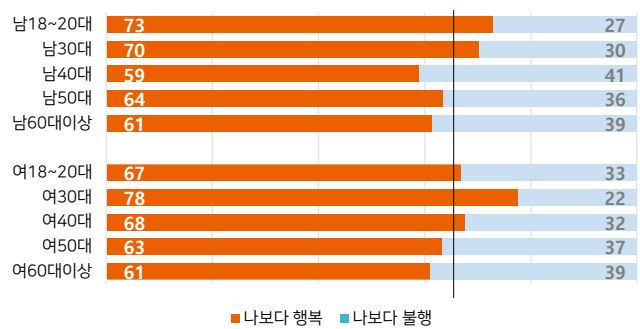
□ 상대적 행복도 : '주변 사람, 나보다 행복해' 66%

- 우리 국민들 다수는 주변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66%)고 생각함
 -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는 응답은 34%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주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남자 18~20대 △여자 30대 △TK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등이 두드러짐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주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진보층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등이었음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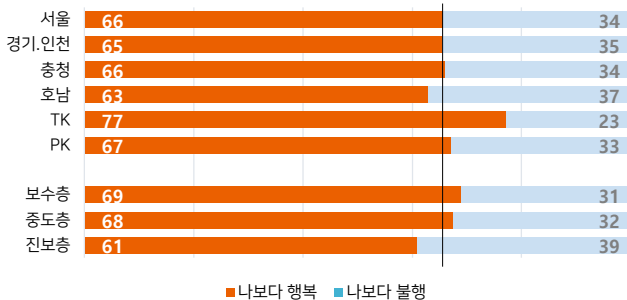


6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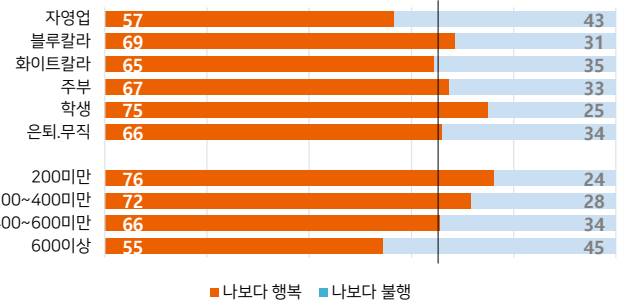
6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6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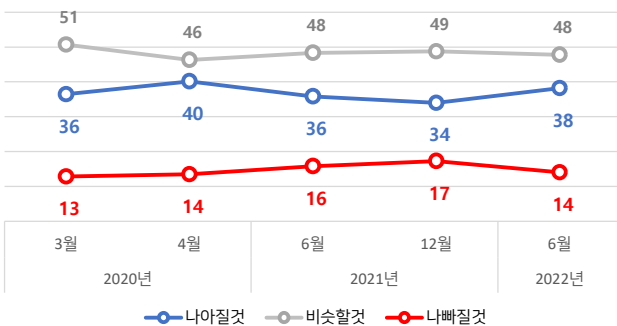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소득과 상대적 행복의 연관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드러남
 - : '자신보다 주변 사람이 불행한 것 같다'의 의미는 자신의 느끼는 상대적 행복감으로,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함
 - : 2021년 1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저널에 발표한 논문("Experienced well-being rises with income, even above \$75,000 per year")에서 킬링스워스는 소득이 높으면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일상의 행복 수준이 증가한다고 밝힘
- ☑ 추가로 눈에 띈 부분은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작년 12월 대비 '주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하다'는 응답이 14%p 증가함
 -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저조한 시기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데, 이러한 응답 결과는 경기가 어려운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소득 계층별 상대적 행복감의 양극화 현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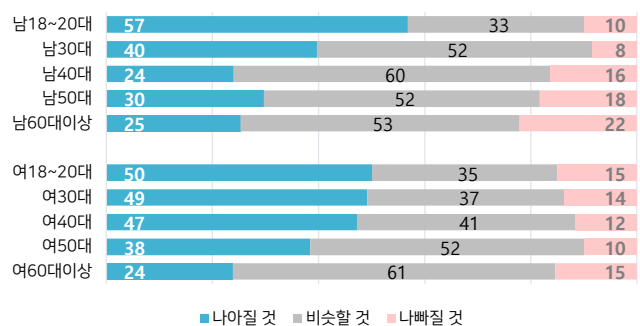
□ 5년 후 개인 삶 전망 : '비슷' 48% > '긍정' 38% > '부정' 14%

- 5년 후 개인 삶에 대한 국민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 48%, '지금보다 나아질 것' 38%, '지금보다 나빠질 것' 14% 순으로 조사됨
- 모든 계층이 긍정적으로 전망(나아질 것)나빠질 것)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 2030세대 △여자 2040세대 △충청, 호남, TK △보수층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등이 긍정적이었음
- 한편, 상대적으로 낮게 '긍정 전망'을 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진보층 △블루칼라,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200~400만 원 미만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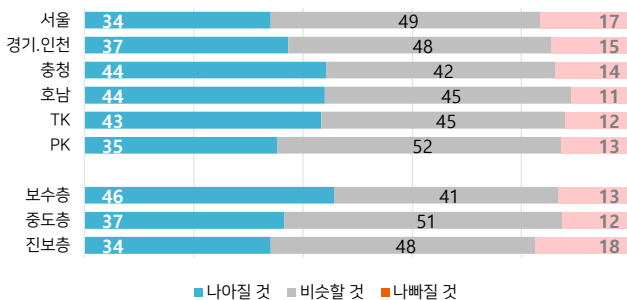
5년 후 개인 삶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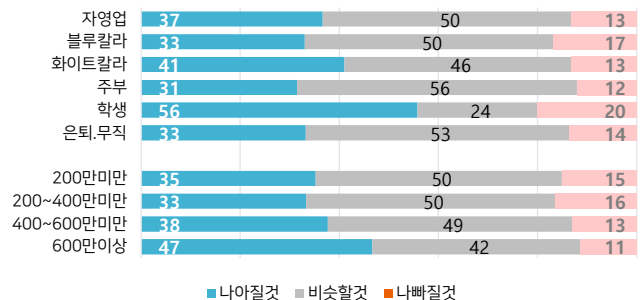
6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성/연령별 (단위:%)



6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6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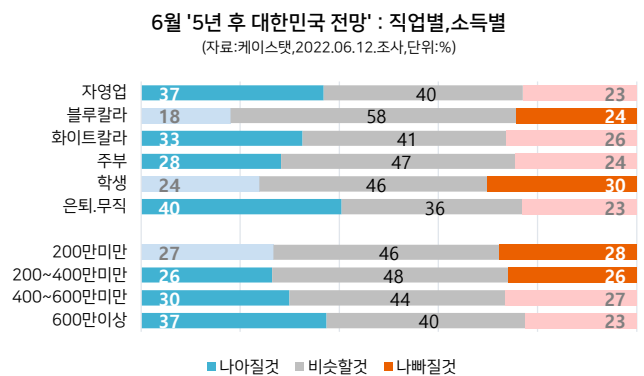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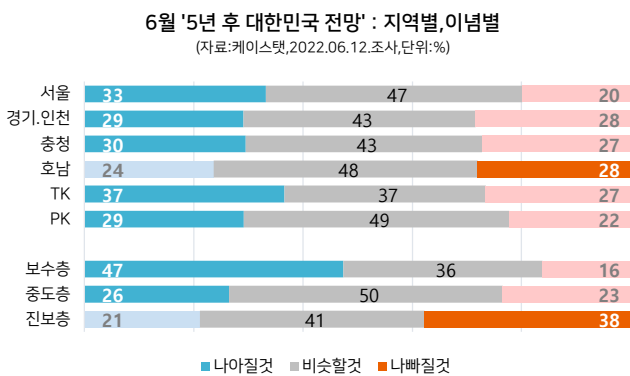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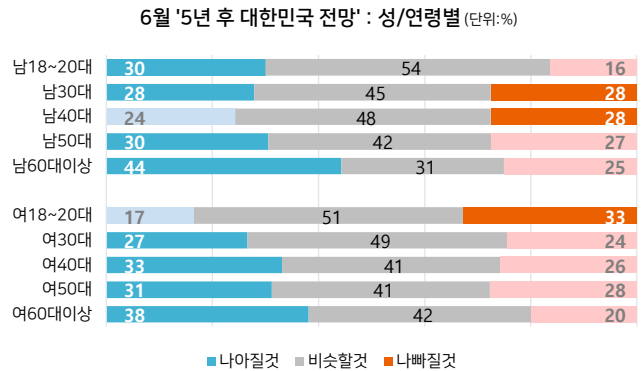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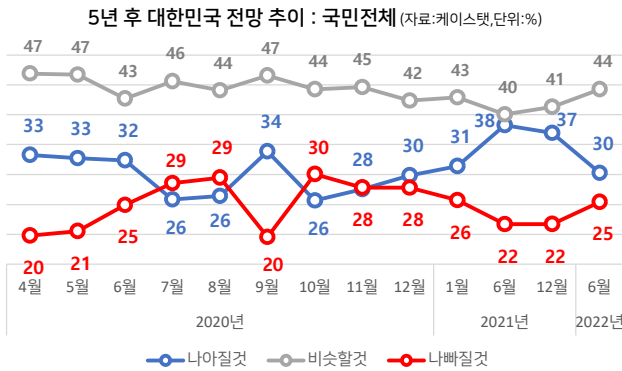


Kstat Point

- ☑ 5년 후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여론이 이전보다 늘어남
: '20년 3월 이후, 5년 후 삶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 응답이 '20년 4월 제외 가장 높으며, 작년 말까지 조금씩 상승했던 '나빠질 것' 응답은 하락함
- ☑ 남녀 18~20대와 학생 등은 긍정 응답이 50% 이상으로, 다른 계층보다 낙관적이었음
: 향후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할 기회와 시간을 가진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임
- ☑ 한편,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 전망이 높은 가운데,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나아질 것' 응답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비슷할 것' 응답은 전체 평균을 밑돌음
: 지난 5월 조사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평소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낮았던 것과 함께 살펴보면, 소득이 평소 삶뿐만 아니라 미래 삶에 관한 생각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긍정'(30%) 하락, '부정'(25%) 상승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44%) 응답은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우세하며, 작년 6월 이후 '나아질 것'(30%) 응답은 하락, '나빠질 것'(25%) 응답은 상승함
- 계층별 긍·부정 전망('나아질 것'과 '나빠질 것' 응답률 비교)을 살펴보면, '긍정 전망' 우세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등이었으며, △보수층은 특히 더 긍정적으로 전망함
- '부정 전망' 우세 계층은 △남자 40대 △호남 △블루칼라, 학생 등이며, △여자 18~20대 △진보층이 특히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 한편, △남자 30대 △월평균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등은 긍·부정 전망 응답이 같았음



Kstat Point

- ☑ 지난해보다 5년 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높아짐
 - '나아질 것'(30%)은 작년 1월 최저치 31%보다 낮고, '나빠질 것', '비슷할 것'은 작년 6월, 12월 대비 증가함
- ☑ 주목된 부분은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과 비지지층 간 응답이 엇갈린 점임
 - 작년과 비교해, 남녀 40대, 여성 20대, 호남, 진보층 등을 중심으로 긍정 전망이 대폭 하락한 반면, 보수층은 큰 폭 상승함
 - 이번 달, 긍정 전망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계층은 정부 주요 지지층인 남녀 60대 이상, TK, 보수층 등과 이외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등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5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3호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중요성 인식 분석』이라는 주제로 6월 3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